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6호 / 2017년 04월



정기구독 신청문의, 기고 보내주실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TEL | 02-2156-2125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6호 / 2017년 4월

| 발행일 | 2017년 4월 10일

| 발행인 | 이용성

| 편집인 | 김형수

| 발행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3층

(TEL: 02-2156-2100)



목 차

뉴스&리뷰	03
KVCA 소식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 GIN-Austria x KVCA Luncheon 개최 • 사무국 조직개편 안내 	
연수원 소식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벤처캐피탈 스캇 아카데미 1차_AR산업 분석과정 • 4월 교육안내 	
투자협력·M&A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투자 IR(서울) • 벤처투자 사랑방 •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사업 공고 	
R&D사업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조찬세미나 • VC Meeting Day •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운영기관 협약 체결 	
협회장 동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경제 창간 51주년 기념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 벤처업계 간담회 • 바른시장 경제 정책추진단 출범식 	
회원사 소식	11
이 슈	13
2017 MWC 방문기	14
2017년 VC투자유망산업(AI)	18
벤처캐피탈 법률 Q&A	21
시장동향	23
2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24
(VC포커스) 해외 16년 벤처캐피탈 통계 (중국,유럽)	29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32



01



뉴스&리뷰
NEWS & REVIEW

KVCA 소식

외국인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외국인투자기관간담회가 3월 30일(목)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IDG Capital Partners, Draper Athena 등 11개 기관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IR(알바이오텍),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자금 유인을 위한 해외제도 등의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그리고 벤처투자 동향 및 기타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네트워킹 오찬으로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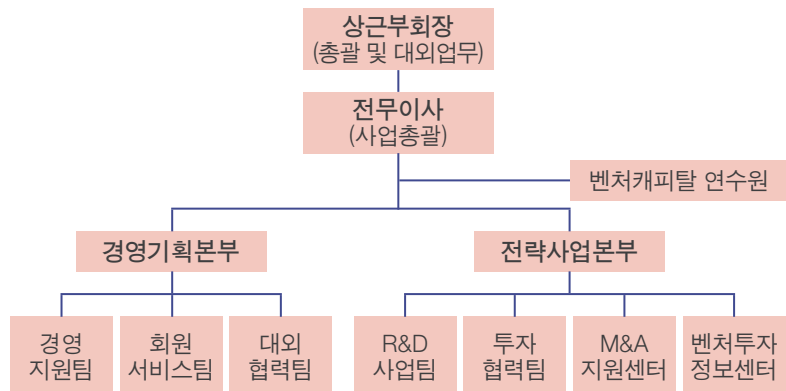
GIN-Austria x KVCA Luncheon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31일(금)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무역대표부, 글로벌 인큐베이터 네트워크 프로그램 (Global Incubator Network, 이하 GIN) 관계자, 국내 벤처캐피탈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투자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 양국간의 업무협업 논의를 위한 비즈니스 런치를 개최했다.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무역대표부 프란츠 슈뢰더 상무참사관의 오프닝 인사 후, GIN 프로그램 소개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오찬과 함께 네트워킹 시간을 이어갔다



사무국 조직개편 안내

본회는 대외협력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스타벤처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등 각 분야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과 업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연수원 소식

2017년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 1차 - AR산업 분석 과정

일자 : 2017년 3월 16일(목) (1일 출석)
장소 : 서울시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전 세계를 강타한 스마트폰의 인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떠오른 AR산업에 대해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연수원은 AR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스팟 교육을 개최하였다.

본 과정은 급변하는 산업 이슈와 벤처캐피탈 업계의 니즈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차 과정은 5월에 개최 예정이다.

내 용	강 사
AR 산업의 현재와 미래	고려대학교 교수 김정현
AR 인터랙션 기술의 최신 동향 및 사례	버넥트 대표 하태진
AR 비즈니스의 경험 및 사례	한울네오텍 부사장 김상국
AR 게임 핵심기술 및 사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방준성



4월 교육 안내

- 교 육 명 : 2017년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 운영 형태 : 3일 출석
- 일 자 : 4월 19일(수) ~ 4월 21일(금)
- 대 상 자 : 창투사, LLC, 신기술금융사, 기타 일반 등
- 과정 개요 : 문화콘텐츠 분야별 산업현황 및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신청 기한 : 4월 11일까지
-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교 육 명 :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 운영 형태 : 1일 출석
- 일 자 : 4월 27일(목)
- 대 상 자 :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VC 임직원 중 교육 만기일이 도래한 자
- 과정 개요 : VC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 신청 기한 : 4월 19일까지
-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투자협력·M&A

찾아가는 투자 IR(서울)



지난 3월 28일(화)에 '찾아가는 투자' IR을 서울 역삼동 소재 TIPS 타운에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수도권 소재 유망 중소기업 70개사, 벤처캐피탈 40개사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선된 10개사의 IR피칭, 벤처캐피탈 33개사와 중소기업 65개사와의 투자 상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앞으로 협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수도권-지방간 벤처투자의 불균형 해소와 전국 벤처투자 붐 확산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투자 IR을 4~5월내에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산업 활성화와 전국 벤처투자 붐 확산을 위해 투자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참가문의 : 투자협력팀 박정원 연구원 (Tel : 02-2156-2132, E-mail : pjw@kvca.or.kr)

[찾아가는 투자 IR 개최 계획]

지 역	날 짜	장 소	IR기업	상담기업
경기	4.6	청년창업사관학교	10개사	40개사
대전	4.10	한밭대학교	"	35개사
인천	4.20	인천대학교	"	35개사
부산,울산	4.26	부산대학교	"	35개사
대구	4.27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35개사

※ 5월 찾아가는 투자 IR 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투자협력·M&A

벤처투자 사랑방



중소기업과 투자심사역 간의 1:1 매칭상담 프로그램인 벤처투자 사랑방이 지난 3월 21일에 개최되었다. 벤처캐피탈 3개사(케이비인베스트먼트, 송현인베스트먼트, 네오플렉스)와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2개사에 대해 VC가 추가상담 의사를 밝혔다. 벤처투자 사랑방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내 사랑방 안내페이지(cafe.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 활성화 지원사업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사업 공고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22일 M&A 활성화를 통한 벤처생태계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거래소 역할이 가능한 전문 자문기관 간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M&A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사업’을 공고하였다.

협회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M&A기업진단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 M&A중개 및 상담 서비스 △M&A자문기관 지정·운영 △M&A거래정보망 운영 및 교류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2016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M&A 활성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M&A 펀드를 통한 M&A 성사사례 증가 등 회원사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또한 M&A 성사건수 증가(‘15년 69건→’16년 72건), VC 등 투자기관의 자문기관 등록 확대(8개사), 다양한 M&A 관련행사 및 홍보캠페인 진행 등 짧은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 창출을 통해 M&A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중소기업청과 협회는 2017년에도 ‘글로벌·스타트업 M&A’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M&A 거래정보망 활용 확대, M&A 거래 인프라 구축, M&A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30여개의 자문기관과 8개의 지원센터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혁신통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M&A 거래정보망(www.mna.go.kr) 공지사항, 각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M&A 활성화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협회 M&A 지원센터(02-2156-21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M&A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진단비용 지원

지원대상 (매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또는 영업이익 10억원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매도 기업) 전년도 영업이익 10억원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지원한도 1건당 2,000만원 한도 내 (총비용의 70% 이내)에서 지원

거래금액	지원한도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500만원
20억원 이상	2,000만원



신청절차

M&A 성사 시
기업진단비용 신청
중소·벤처기업

실태조사
VC협회

지원대상선정(격월)
선정위원회

비용지원 및
사후관리
VC협회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M&A 거래 정보망 운영

국내 최대 M&A 물건
DB 보유 전체 3,300여건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M&A 자문기관 등
약 4,000개사 회원 등록



벤처캐피탈,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약 130여개 자문기관 활동



R&D 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CEO 조찬 세미나

본회는 지난 3월 7일(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2008년 이후 선정된 투자연계과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끌리는 리더는 1%가 다르다(연사 : 이민규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CEO 조찬세미나는 인문·경영·과학분야 명사초청 네트워킹 포럼으로, 매월 초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다음 조찬세미나는 4월 11일(화)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VC Meeting Day

2016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VC Meeting Day가 13일(월), 15일(수), 27일(월)에 개최되었다. 협회는 투자심사역과 선정기업 투자유치담당자가 1:1로 만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12개사의 기업과 창투자, 신기술사, 은행의 심사역이 참석하였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멘토링과제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운영기관 협약 체결

본회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엔젤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연계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운영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5년도에 선정된 59개사를 대상으로 경영활동 정기점검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과제 수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재무·경영상황 점검, 멘토링 계획서에 따른 멘토의 성실한 멘토링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멘토링 수행현황 점검, 회계법인 현장방문으로 현금흐름, 성장분석,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이행점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는 15년도 이후 신규 선정없이, 사후관리만 진행 중

협회장 동정

매일경제 창간 51주년 기념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3월 23일(목), 매일경제 창간 51주년을 맞아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26차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을 주제로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정·계 인사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담은 “대한민국 안보보고서”를 발표했다.

벤처업계 간담회

3월 17일(금),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벤처업계·만찬 간담회에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벤처 붐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벤처 유관단체 전·현임 회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벤처 활성화 비전 공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벤처기업협회 전·현 회장, 여성벤처협회 전·현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만찬과 함께 정책건의 및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바른시장 경제 정책추진단 출범식

본회 이용성 회장은 3월 9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의실에서 15개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박광태 중소기업학회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정책추진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시킬 정책 사업으로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일 탄핵 심판에서 결정될 대선 시기에 맞춰 사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사 소식

사무실 변경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미니투자	서울시 서초대로 78길 5 대각빌딩 10층	02-2051-9640	02-2051-9639

대표이사 변경

회 사 명	변경전	변경후
씨케이디창업투자	김 태 영	김 주 영

[대교인베스트먼트]

애니메이션 '정글에서 살아남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살아남기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함께 6월말 TV 방영을 목표로 '정글에서 살아남기 시즌3' 애니메이션 제작에 돌입한 대교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콘텐츠는 AR 기반의 모바일 게임인 '정글에서 살아남기-정글 파이터즈'다.

[데일리벤처투자]

본격적으로 모회사와의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데일리금융그룹(구 옐로금융그룹)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목적의 해외 핀테크 업체 발굴, 데일리금융그룹 계열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스타트업 및 핀테크 업체 투자를 위한 펀드 결성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훈인베스트먼트]

인력 구성과 사명에 변화를 주며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한 동훈인베스트먼트가 재도약을 준비한다. 새로 영입된 진성태 대표 아래 조직을 정비하며 지난해 연말 2명의 심사역을 영입했으며 올해도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여 고급 기술인력 창업펀드 결성을 위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현대자동차 출신의 기술 전문 심사역인 김주남 수석팀장을 영입했다. 현대자동차에서 딥러닝, 증강현실(AR), 초소형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했으며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가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를 늘린 가운데 김 수석팀장의 합류는 투자 본부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메가인베스트먼트]

투자 본부를 파트너 체제로 개편했다. 투자 본부는 현재 시니어 심사역과 주니어 심사역들이 각각 3명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 중 시니어 심사역인 김정민 대표, 김동훈 전무, 조명우 이사가 파트너를 맡으며, 각 파트너들은 주니어 심사역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업에 나선다.

[벤처포럼인베스트]

‘투션피재츠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엠아이텍에 20억원을 투자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해외 주요시장 진출 가속화에 따른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스텐트 시장 등에서 독자 기술력을 통해 수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현인베스트먼트]

자동차 전장업체 디젠에 ‘키스톤송현밸류크리에이션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송현성장사다리제1호투자조합’을 통해 250억원을 투자했다. 자동차 전장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진행한 투자이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Follow-on투자펀드’의 1차 출자자 모집을 마치고 운용에 돌입했다. 이 펀드는 약정총액 320억원으로, 앵커 LP인 성장금융이 제시한 최소 결성 금액(400억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늦어도 6개월 내에 추가 출자자를 확보해 멀티 클로징에 나서야 한다.

[아이디벤처스]

문화콘텐츠 섹터로 투자 영역을 확대한다. 최근 한국벤처투자가 공고한 '2017년 1차 정시 출자사업'이 문화콘텐츠 분야에 뛰어드는 아이디벤처스의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설립 후 처음으로 조성한 '지적재산권(IP)' 펀드('IBKC-IDV IP전문조합 1호')를 조기청산중에 있으며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2015년 11월 부임했던 박세정 대표가 떠나고 증권업계에 있던 새로운 인물이 에이치큐인베스트를 이끌게 된다.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용석 GRS투자자문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용석 신임 대표는 IBS컨설팅컴퍼니 본부장을 거쳐 GRS투자자문 대표를 역임하였다.

[이노폴리스파트너스]

5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후 결성되는 펀드다. 이번에 결성하는 조합의 핵심 출자자는 국민연금이며, 특구재단도 이번 이노폴리스 펀드에 출자한다. 이노폴리스는 과거 연구개발 특구지역에 투자해야 하는 벤처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특구재단은 이를 우수하게 평가하고 출자했다.

[인터베스트]

'2015KIF-인터베스트 IT디지털콘텐츠전문투자조합'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보안 전문기업 잉카엔트웍스의 상환전환우선주 2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투자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확대 속에 보안 기술의 적용성이 높고 산업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잉카엔트웍스의 성장성에 주목하며 이뤄졌다.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RFHIC가 발행한 보통주 약 15억원 어치를 한국투자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업계 관계자는 "RFHIC 상장 작업이 무르익자 케이투인베스트가 구주 매각을 추진해왔다"며 "RFHIC를 주목한 한국투자파트너스와 벨류에이션 협의를 벌인 후 거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콜리조코너인베스트먼트]

타이어비즈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했다. 인수 규모는 5억원 어치로 인수자금은 '부산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조달했다. 타이어비즈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됐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 공유 서비스 업체 패스트파이브에 5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재원은 '티에스2015-9성장전략M&A 투자조합'에서 충당했다. 패스트파이브는 티에스인베스트먼트-퀀텀에쿼티파트너스의 투자금을 사업장 추가 확보에 쓸 방침이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지난 2013년 'KoFC-파트너스PioneerChamp 2011-1호 투자조합'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업체 선익시스템에 5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는 신주가 아닌 기존 기관투자자들의 구주 44만 1310주를 인수하는 구조였다. 선익시스템의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최종적으로 원금의 2.5배 가량을 회수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500억원 규모의 '파트너스7호세컨더리투자조합' 결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 펀드'와 '한국투자 유망서비스산업 투자조합'을 통해 딥러닝 기술 기반 스타트업 옴니어스에 투자했다. 스타트업임에도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만한 기술력과 성장 동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프리 시리즈A 투자를 결정했다.

[한화인베스트먼트]

운용중인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통해 피씨엘의 상장 직후 보유중이던 주식 23만 4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투자 원금 회수를 마친 상황에서 보호예수 이후 추가 매각을 통해 원금 대비 5배 가량의 수익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02

—

이슈
ISSUE



정성민
포스코기술투자 책임심사역

2017 MWC 방문기

MWC(Mobile World Congress)는 전세계 통신업계의 가장 큰 행사다.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9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와 함께 세계 3대 IT 박람회로 꼽히며,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Mobile, The Next Element' 라는 주제로 스마트폰 이후 더욱 빨라진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 최신 ICT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5년간 MWC의 주제와 주요 이슈를 살펴봄으로서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읽어보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ICT 환경, 인터넷 환경, 컴퓨팅 환경에 그리고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독자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구분	주제	주요 이슈
2012년	모바일에 대한 재정의(Redefining Mobile)	Quad Core CPU, 4G LTE
2013년	새로운 모바일의 지평(The new Mobile Horizon)	5인치 이상의 패블릿(phablet)
2014년	다음 세대를 창조하라(Creating what's Next)	OTT, 인터넷 서비스
2015년	혁신의 최전선(Edge of Innovation)	IOT, 핀테크, 빅데이터
2016년	모바일은 모든 것(Mobile is Everything)	모바일 기반의 뉴미디어

올해의 MWC는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업체 2,300개사, 참가자 108,000명, 참여미디어 3,500개, 참여 국가 및 지역이 208개에 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통신사와 통신장비, 자동차,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연설자가 총 11개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5G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의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단, 개최 전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의 공개가 미뤄져 참가자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높았으나 그 빈자리를 LG의 G6와 Huawei P10, Sony Xperia XZ Premium 등이 채워주었다.

WMC 2017 중국 스마트폰 스펙 비교

					
모토Z	엑손7 맥스	A5 LED	R9S 플러스	A2	
제조사	레노버	ZTE	알카텔	오포	하이센스
디스플레이	5.5인치(1440x2580)	6인치(1080x1920)	5.2인치(1080x1920)	6인치(1080x1920)	5.5인치(1080x1920)
모바일A	스냅드레곤820	스냅드레곤825	미디어텍 MT6753	스냅드레곤653	스냅드레곤430
램(RAM)	4GB	4GB	2GB	6GB	4GB
내장메모리	32GB	64GB	16GB	64GB	64GB
후면카메라	1300만 화소	1300·1300만 화소 듀얼	1300만 화소	1600만 화소	1600만 화소
전면카메라	500만 화소	1300만 화소	500만 화소	1600만 화소	500만 화소
배터리	2600mAh	4100mAh	2500mAh	4000mAh	3090mAh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6.0	안드로이드6.0	안드로이드6.0	안드로이드6.0	안드로이드6.0
주요특징	모돌식 결합	3D 카메라	LED 후면 케이스	고성능 셸피	E-잉크 화면

					
블랙베리 키원	M2017	U Play	P10	BV7000프로	
제조사	TCL	지오니	HTC	화웨이	블랙뷰
디스플레이	4.5인치(1620x1080)	5.7인치(2560x1440)	5.2인치(2560x1440)	5.1인치(1920x1080)	5.0인치(1920x1080)
모바일A	스냅드레곤625	스냅드레곤651	스냅드레곤821	기린960	미디어텍6750t
램(RAM)	3GB	6GB	4GB	4GB	4GB
내장메모리	32GB	128GB	64GB	64GB	64GB
후면카메라	1200만 화소	듀얼카메라 1200만+1300만	1200만 화소	듀얼카메라 2000만+1200만	1300만 화소
전면카메라	800만 화소	800만 화소	1800만 화소	800만 화소	800만 화소
배터리	3505mAh	일체형 7000mAh	일체형 2500mAh	일체형 3200mAh	일체형 3500mAh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6.0	안드로이드7.1(누가)	안드로이드7.0(누가)	안드로이드7.0(누가)	안드로이드6.0(마시멜로우)
주요특징	스라이프 쿼터 자판	세계 최대 용량 배터리	머신러닝기반 AI '컴패니언'	얼굴인식 활용 셀카 촬영	IP68 러그드 폰

출처 : 전자신문 [MWC 2017] 중국 스마트폰 전략 확 바뀌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약진이었으며,

Huawei(P10), OPPO(R9S Plus), ZTE(AXON 7 MAX), Gionee(M2017), TCL(BlackBerry KEYone), HiSense(A2) 등 전시관 곳곳이 중국 제조사들의 신제품으로 넘쳐났다. 당장 스펙만 보아도 더 이상 예전의 'Made in China = 짝퉁, 저품질'의 공식을 떠올리기 어려웠으며 디자인 또한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하드웨어의 발전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기술의 상향평준화가 되었고 차별화를 위해 제시하는 분야가 대화면 디스플레이(18:9), HDR(High dynamic range) 지원, 듀얼카메라 및 카메라 시스템으로 나타나면서 사용자의 경험과 니즈에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금번 MWC는 스마트폰 보다는 5G가 가장 큰 화두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5G가 빠른 속도,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 'Mobile is Everything'을 실현시킬 새로운 통신 환경 정도의 막연한 방향성만 제시했었다면, 올해는 글로벌 기업을 위주로 상용화(Commercial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우선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시장에 새 도전을 발표하며 5G 서비스를 위한 소비자용 단말(휴대폰 · CPE), 기지국, 차세대 코어 네트워크 장비를 공개 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4G와 비교하여 속도 차이만 1,000배 이상 나는 5G 상용화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Nokia CEO 라지브 수리의 기조연설 내용처럼 서버, 라우터 등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선행된 이후에야 4차 산업혁명이든, Connected Everything이든, 콘텐츠사업자와의 융복합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대별 이동통신시스템 기술 주요특징

구분	전송방식	전송방식		주요서비스	이동성	상용화 시기
		업로드	다운로드			
1G	아날로그통신	음성전용		음성	-	1978년
2G	GSM CDMA TDMA	14.4Kbps	57.6Kbps	음성/문자	-	1992년
3G	CDMA FDD	1.8Mbps	3.1Mbps	음성/문자/인터넷	250km/h	2000년
3.5G	WCDMA FDD	1.4Mbps	14.4Mbps	음성/문자/고속 인터넷	250km/h	2006년
3.9G	하향 : OFDMA/FDD 상향 : DFTS-OFDM (SC-FDMA)	50Mbps	100Mbps	음성/문자/초고속 인터넷 대용량 멀티미디어 (HD, 풀HD)	350km/h	2009년
4G	하향 : OFDMA/FDD 상향 : 클러스터드DFTS-OFDM(SC-FDMA)	300Mbps	600Mbps	음성/문자/초고속 인터넷 대용량 멀티미디어 (울트라 풀HD, 3D) 초고속 인터넷	350km/h 이상	2013년~
5G	인밴드 풀 듀플렉스 논(Non) OFDM	500Gbps	100Gbps 이상	대용량 멀티미디어 (울트라 풀HD, 3D) 실감영상(홀로그램 등)	고속철도 수준	2020년 예정

또한, 음성인식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고도화 시키고 있는 IBM(왓슨), 아마존(알렉사), 라인(클로바) 등이 다른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선보인 합종연횡 상용화 전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다만, 가전, 로봇, 셋탑박스, 스마트워치, 스피커와 접목시킨 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시켜주는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그 실효성과 편의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단계였다.



소프트뱅크 페퍼



SKT 누구



SKT 매장 주문 로봇

끝으로 Connected Car는 앞선 미국 CES와의 큰 차별화가 없어 보였다. 국내 기업으로는 SKT가 에릭슨, BMW와 공동으로 선보인 SKT 5G 커넥티드카가 가장 눈에 띄었으며, 특히 T맵을 적용하여 안정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며 5G 통신을 접목한 체험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인텔은 BMW와 함께 자율주행차 실물을 전시했고, AT&T는 재규어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 개인화를 강조하였다.

2017 MWC는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다음 세대를 주도할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 스마트폰 하드웨어 경쟁시대의 종식과 이와 결합되는 서비스와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고부가 서비스와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onnected Everything의 이면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능동적인 Connecting이 필요한 만큼, 5G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표준의 확정과 보안기술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VC투자 유망산업

AI



100 STARTUP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TRANSFORM INDUSTRIES

CONVERSATIONAL AI/ BOTS



VISION



AUTO



ROBO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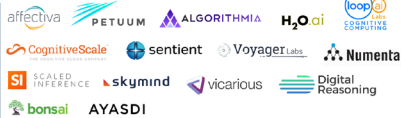
CYBERSECURITY



BUSINESS INTELLIGENCE & ANALYTICS



CORE AI



AD, SALES, CRM



HEALTHCARE



TEXT ANALYSIS/ GENERATION



IOT/IOT



COMMERCE



FINTECH &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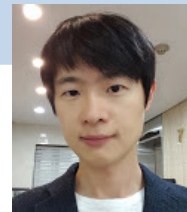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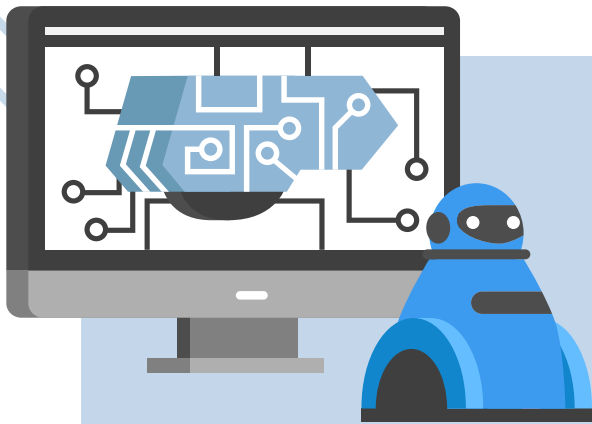


오영민 박사

(주)네오팩트 데이터 사이언스팀 수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뇌신경과학 박사 (USC)



2017년 현재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과학소설이나 SF 영화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이다. 작년에 세계의 관심을 모은 알파고의 등장은 그 중 두드러진 한 형태일 뿐이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고객의 정보와 과거 구매기록을 바탕으로, 때론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고객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을 추천해 준다. 구글과 네이버의 번역 서비스는 이미 인간의 수준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뿐 아니라 구글같은 IT회사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머신러닝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이다.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를 통해 인공지능 개인 비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IBM 왓슨이 암 진단과 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필자가 연구하는 인공지능 기반 재활 분야에서는 뇌졸중 등으로 인한 운동 장애 환자들의 운동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훈련 방법을 제시해 준다. 마케팅과 광고 등의 시장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이미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버렸다. 온라인과 SNS 등을 중심으로 거대하게 형성된 현대 마케팅 시장에선 수없이 많은 소비자의 데이터가 흐르고, 인공지능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광고주들과 기업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타겟과 방법을 알려 준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과 산업 전반에서의 광범위한 활용은 또 하나의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선두적인 IT 기업들은 너나없이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에 뛰어 든 상태이다. 대표적인 검색 및 인터넷 광고 기업인 구글은 딥러닝 전문기업인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각종 인공지능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인공지능 회사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이미지 분석 및 음성, 자연어 처리, 번역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딥러닝용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머신러닝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IBM도 전통적인 인공지능 연구의 선두자답게, IBM 왓슨으로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간 챔피언을 격파한 후, 인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금융, 방송, 언어, 쇼핑,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원래 컴퓨터 그래픽 및 게임용 프로세서(GPU)를 생산하던 기업인 엔비디아(nVidia)는 최근에 딥러닝이 GPU의 병렬처리를 이용해서 계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점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하드웨어 및 플랫폼 분야를 중요한 사업분야로 삼고 있다. 아마존은 그들의 방대한 온라인 쇼핑 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AWS)에 이어, 아마존 에코와 알렉사를 통한 음성 인식, 인공지능 비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거대 기업들 뿐 아니라 스타트업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활용은 스타트업들에게 더욱 더 좋은 기회이다. 국내에서도 개인비서, 의료관련, 교육,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IoT 기술의 발달과 보급, 인터넷과 데이터 환경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내상황은 그대로 인공지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구현되어 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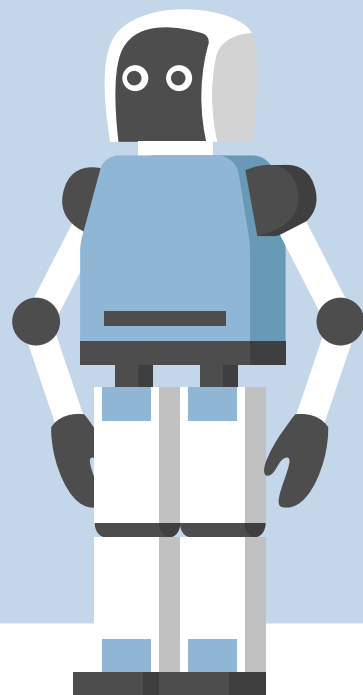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관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실현 가능한 인공지능은 20세기 중반 디지털 컴퓨터의 탄생과 거의 동시에 탐구 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컴퓨터로 사칙연산, 논리연산을 조합하여 웬만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음을 깨달은 과학자들은 과연 앞으로 이 기계가 인간처럼 창의적이고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을 지 궁금해 했고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현대 컴퓨터의 기초를 마련한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한 사람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건너편의 두 명과 대화를 한다. 둘 중 한 명은 사람, 나머지 하나는 인공지능이다. 채팅을 하면서 상대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맞추는 테스트를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다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며 그 기계는 “지능”을 갖추었다라고 인정된다. 즉, 이는 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무관하게, 그 기능에 기반을 둔 지능의 정의이다. 현재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튜링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화에 대한 튜링테스트 통과가 어려운 이유는, 광범위한 영역과 주제에 대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지능적 행동을 보이는 “강한 인공지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한 인공지능은 때로는 일반적 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리며, 이와 대비되는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 인간에 준하거나 그를 뛰어넘는 특수 인공지능이다.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전문가들도 그 도래 시기와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약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주변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즉, 서두에서 얘기한 현재의 인공지능은 그들 각각의 분야 - 마케팅, 의료, 교육, 금융, 이미지 처리, 음성 처리, 자연어 등에서 특화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현재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고유어에 가까운 개념이므로 머신러닝으로 표기한다)으로 구현되는 것이 실용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과학자 탐 미첼은 머신러닝을 “어떤 종류의 과제 T(Task)를 수행하는 경험 E(Experience)으로부터 성능 P(Performance)를 향상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바 있다. 최근 각광받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서, 여러 층으로 쌓아올린 신경망 사이의 연결 강도를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과거에는 깊은 구조의 신경망의 학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약점이 최근의 연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되면서, 이미지 인식 등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의 축적과 그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의 연구,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실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잠재적인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투자와 동시에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2016년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7가지 중요사항을 밝혔다. 그 7가지는 각각 장기적인 투자, 효과적인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 방법의 개발, 윤리사회적인 영향력 이해, 안전과 보안,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셋, 표준과 벤치마크를 통한 인공지능 평가, 그리고 국가적인 인공지능 워크포스에 대한 수요 이해이다. 미국 백악관은 2016년 각각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 가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요지는 인공지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을 미리 예측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역사에서는 인공지능 겨울이라는 긴 시련의 시간이 있었다. 한 때 각광받던 방법들이 곧 한계에 봉착하면서 갑자기 관심과 투자가 줄어든 시기이다. 하지만, 결국 최근의 인공지능의 화려한 부활은 그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한 연구자와 기업,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국가의 학문과 산업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머신러닝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 실용적 응용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과학적 사고력에 있다. 아서 클라크의 과학 3법칙 “충분히 발달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에게도 해당 될 것이다. 그러나 마법과 달리 우리는 적어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 그 원리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현명한 활용을 위해서는 그 실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탈 법률 Q&A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 계산]

Q. 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¹⁾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²⁾에서 말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판결요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도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판례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3%를 초과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3. 따라서 피투자기업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사 및 감사의 지위 취득 시점]

Q. 이사 및 감사의 지위에 회사의 대표기관과의 임용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7. 3. 2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존 판례 변경)

1)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판결요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회적 실체로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종류 중에서도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업무집행자와 대표자를 별도로 둔다 하더라도 사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므로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일치하는 데 반하여,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출자자이자 소유자인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외에는 회사의 기관이 되는 데 주주로서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특색이다. 주식회사의 기관 중에서도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의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어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어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어나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이어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어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및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2.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어나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행위와 각 이어나 감사의 승낙으로서 지위를 득하는 것이며 회사의 대표기관과의 임용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3.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계약 위반 등의 문제로 피투자기업의 임원의 선임, 해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동 판례의 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03



시장동향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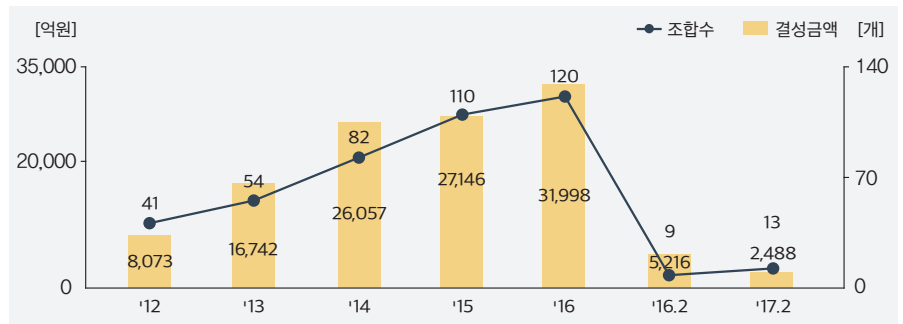
2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2017년 2월에 지방기업펀드 1개를 포함한 5개 조합(창투조합 4개, KVF 1개)이 1,072억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2월에는 총 191건(115개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1,580억원으로 전년 동월(1,305억원) 대비 275억원(21.1%) 증가
- 2월 회수는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가 47.0%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비중이 27.8%를 차지

투자자원

■ 조합결성

▷ 금년 2월까지 13개 조합, 2,488억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9개 조합, 5,126억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 수는 4개(44.4%) 증가, 결성금액은 2,638억원(51.5%) 감소한 수치이다.



■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금년 2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일반법인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 25.7%, 성장사다리를 포함한 기타 단체 24.1%, 벤처캐피탈이 11.2% 등의 순이다.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모태펀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72.5%로 전년 동기(70.1%) 대비 2.4%p 증가한 수치이다.

[단위 : %]

조합원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	2017.2
정책기관 (모태펀드)	32.8 (24.9)	32.8 (31.6)	16.5 (14.4)	31.7 (23.6)	25.4 (18.9)	10.6 (8.6)	2.6 (1.4)
금융기관 (산은/정금)	19.9 (7.4)	26.6 (16.3)	22.3 (12.3)	22.6 (4.1)	25.3 (6.9)	42.4 (19.3)	25.7 (8.0)
연금/공제회 (국민연금)	10.9 (7.4)	8.4 (4.8)	20.3 (9.9)	4.2 (1.0)	9.8 (6.3)	7.4 (5.3)	7.2 (7.2)
벤처캐피탈	19.6	13.2	11.4	11.5	14.0	20.3	11.2
일반법인	11.8	14.9	9.8	14.0	14.0	8.2	28.1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1.6 (0.0)	1.0 (0.0)	13.1 (11.4)	10.4 (9.2)	8.6 (4.5)	10.1 (0.0)	24.1 (16.9)
개 인	0.9	1.8	3.4	3.5	1.9	1.0	1.1
외국인	2.5	1.3	3.2	2.1	1.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2월 신규결성조합 주요현황

- 스마일게이트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8월 성장금융의 2016년 제3차 성장사다리펀드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돼 팔로우온펀드 결성을 추진했다. 성장금융의 팔로우온 펀드는 초기기업들이 후속 투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펀드 약정총액의 상당 부분을 4년 이내의 초기기업과 업력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 지 앤 텍 - 지애편벤처투자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이후 반 년만에 31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시밀러 및 벡터 등 신약 개발, 의료진단 기기 분야,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분야,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부품소재 분야가 될 예정이다.
- 유 안 타 -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마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를 출범하였다. 총액 중 60억원 이상을 광주지역 프로젝트 및 문화관련업체에 투자할 계획이다.

▷ 2017년 1월까지 8개가 결성된 조합은 2월에 5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지방기업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스마일게이트Follow-on투자펀드'가 320억원으로 가장 컸고, 지애편벤처투자의 '지애편3호벤처투자조합', 대교인베스트먼트의 'DKI Growing Star 3호 투자조합'이 각각 310억원, 300억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 억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지애편벤처투자	KVF	지애편3호벤처투자조합	310	일반	중소/벤처일반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마그나 영상전문투자조합 1호	42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대교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DKI Growing Star 3호 투자조합	3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스마일게이트Follow-on투자펀드	320	일반	중소/벤처일반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마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	100	지방	문화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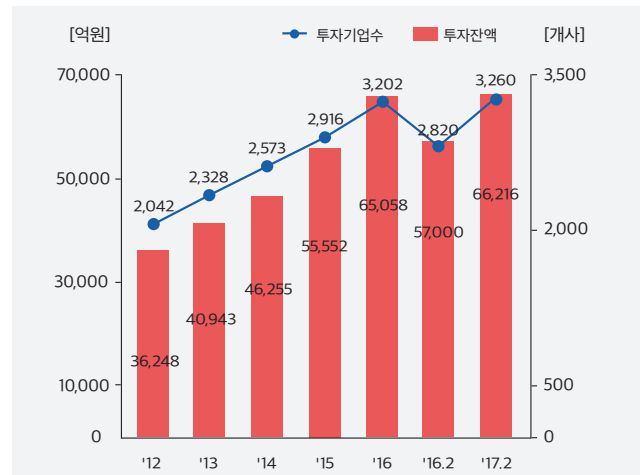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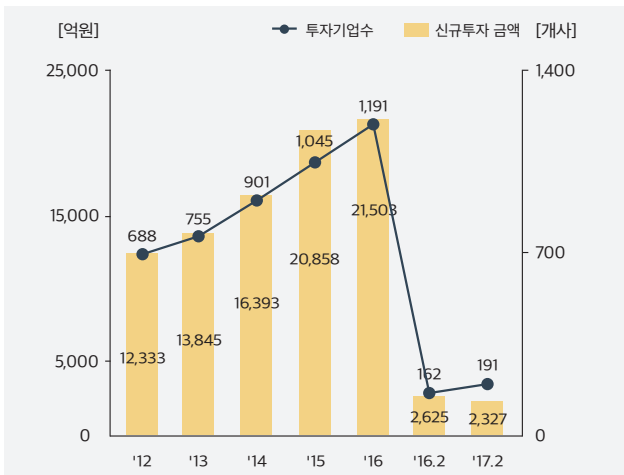
신규투자

■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잔액

▷ 금년 2월까지 신규투자는 2,327억원으로 전년 동기(2,625억원)보다 11.4% 감소하였고, 투자업체수는 191개사로 전년 동기(162개사) 대비 17.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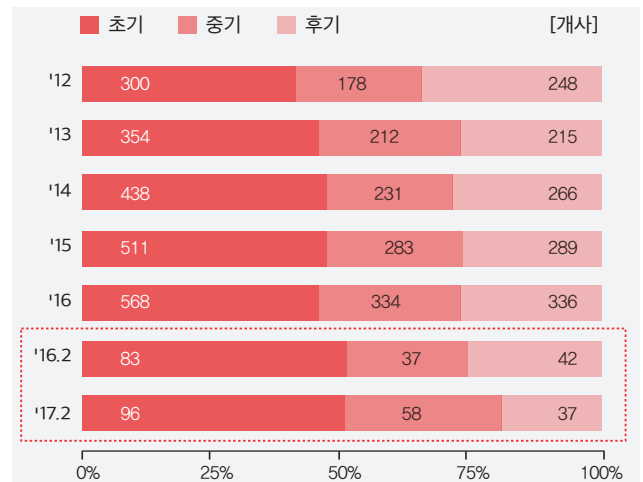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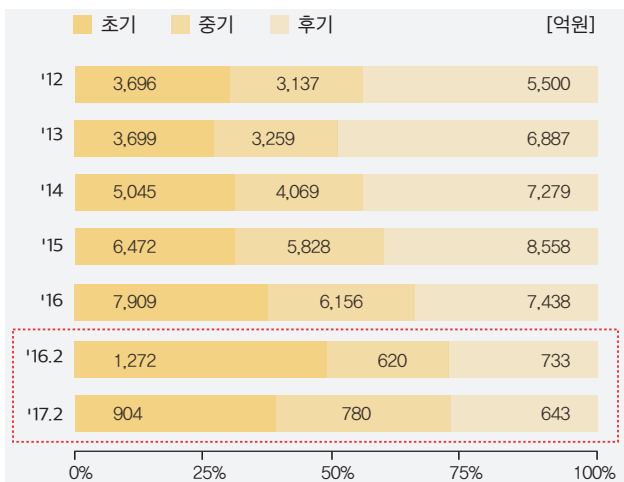
▷ 2월에는 베이글코드가 13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리얼라이즈픽쳐스, 해피엔자임, 미래파인켄, 데이세븐, 디앤에이 등의 순이었다.

▷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2월까지 3,260개 업체에 6조 6,216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2월까지 초기기업 투자비중이 38.9%로 가장 컸으며, 중기기업 33.5%, 후기기업 27.6%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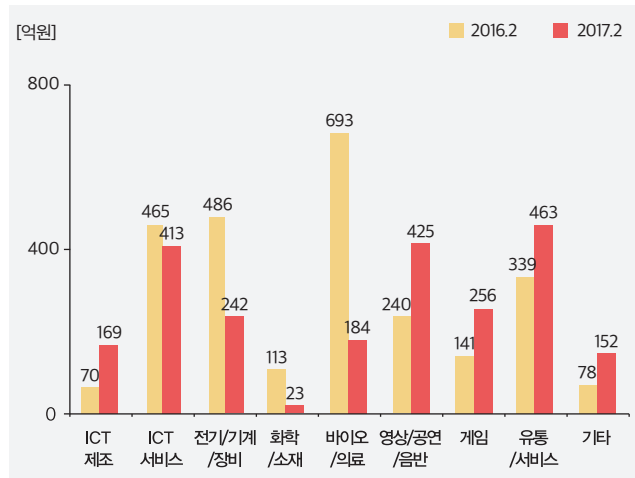
2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업종별 신규투자

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 463억원, 영상/공연/음반 425억원, ICT서비스 413억원, 게임 256억원 순으로 신규투자가 되었으며 영상/공연/음반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18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509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	2017.2
ICT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70	169
ICT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465	413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486	242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113	23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693	184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240	425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141	256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339	463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78	152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625	2,327



■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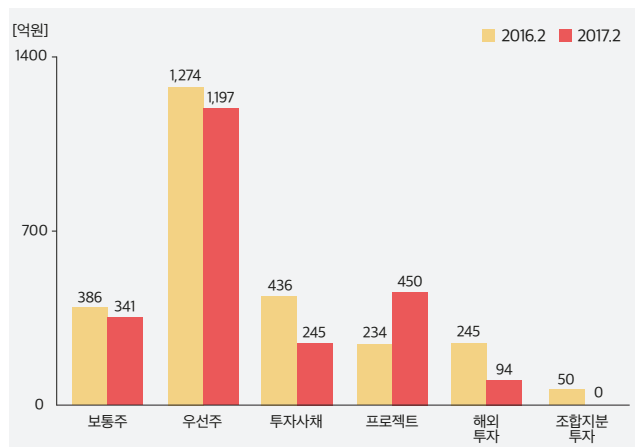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1,197억원으로 전체투자의 5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프로젝트가 450억원으로 19.3%였다. 반면 CB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4억원 감소하였다.

프로젝트 투자가 전년 동기(8.9%) 대비 10.4%p증가한 19.3%로 확대되었고, 우선주투자는 51.5%로 전년 동기(48.6%) 대비 2.9%p 증가하였다. 반면 CB투자 비중은 9.4%로 전년 동기(15.4%) 대비 6.0%p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59.7%)을 비롯한 수도권(84.8%)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7.0% , 5대광역시 4.1%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도 8개사 94억원 (4.1%)이 투자되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	2017.2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386	341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1,274	1,197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436	245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234	450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245	94
조합지분투자	0	0	0	152	271	50	0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625	2,327



투자회수

■ 유형별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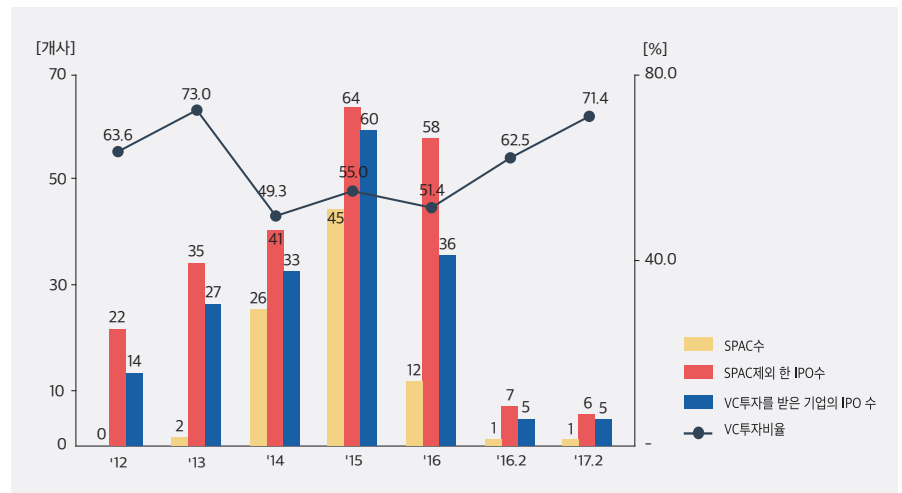
▷ 2월까지 회수원금은 882억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47.0%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가 27.8%, IPO 19.4%였다.

▷ 특히, 2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54건의 거래를 통해 13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80억원(6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52억원(39.4%)이었다.

▷ 2월에는 코스닥시장에 5개사(신한제3호기업인수목적, 피씨엘,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에프엔에스테크, 신신제약)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피씨엘,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에프엔에스테크 등 3개사가 VC투자를 받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	2017.2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511	172
M&A	72	22	163	150	329	5	17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440	245
장외매각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313	356
	채권	1,165	1,025	1,311	1,614	26	57
기타	188	736	217	342	476	42	35
합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1,337	882



VC Focus

해외 4분기 벤처캐피탈 통계 (중국,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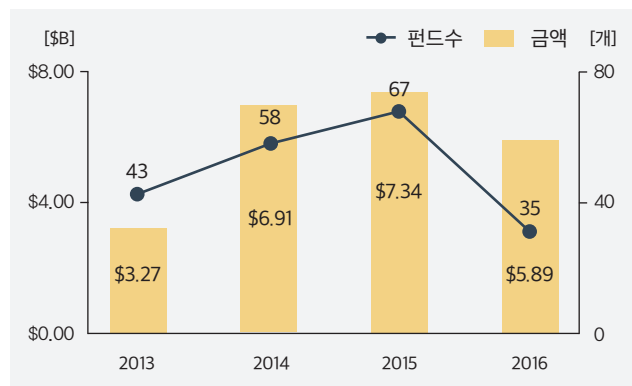
*자료 :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Europe", "Venture Capital Report, China"



투자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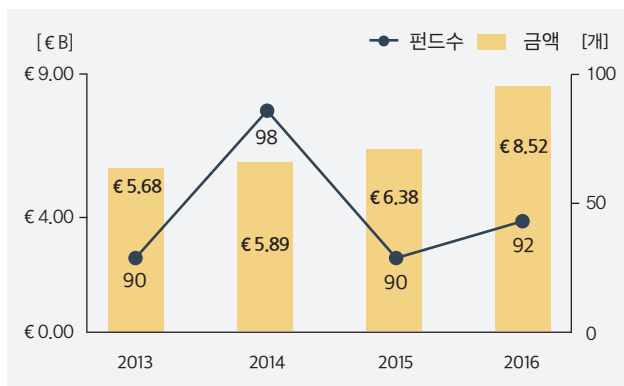
중국

2016년까지 35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58억 9천만달러(7조 975억원)임



유럽

2016년까지 92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85억 2천만유로(10조 8,22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21억 4천만유로) 33.5% 증가함



펀드결성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중국	39,404	83,266	88,447	70,975
유럽	72,147	74,814	81,038	108,220
한국	16,742	26,057	27,146	31,998

*환율은 2016년 12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205.00원, 1유로=1,270.1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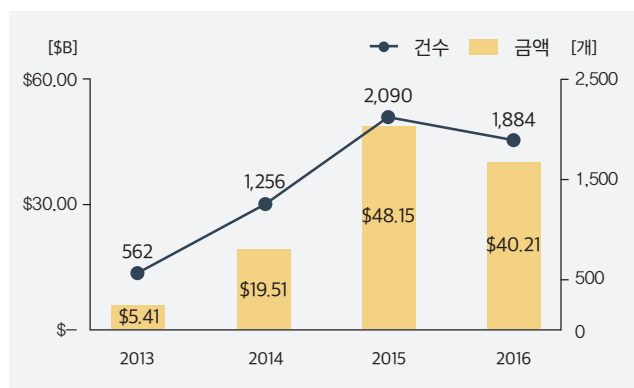
비교

- 2016년 4분기까지 펀드 결성금액은 한국이 3조 1,998억원으로 유럽은 한국의 3.4배 수준, 중국은 2.2배 수준임

신규투자

중국

2016년까지 총 1,884건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총 투자금액은 402억 1천만달러(48조 4,531억원)를 기록함



2016년 4/4분기 신규투자기업(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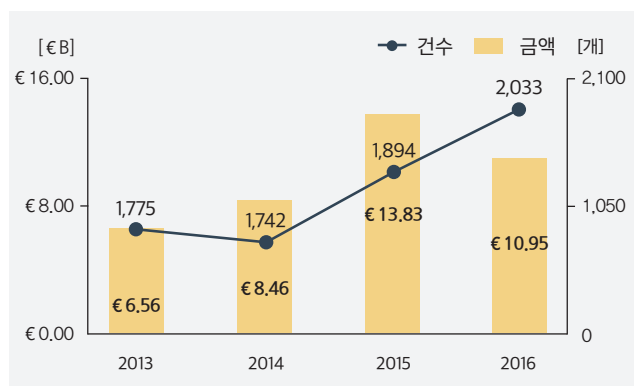
2016년 4분기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Xuanyixia (Beijing) Technology,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는 Zhuhai Yinlong New Energy 등이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단위 : 백만달러]

순위	2016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1	Xuanyixia (Beijing) Technology Co. Ltd. (Miaopai)	500
2	Zhuhai Yinlong New Energy Ltd. (Yinlong Group)	436
3	Shouqi Rental Co. Ltd. (Izuche)	312
4	Yisheng Financial Service Holding Group Co. Ltd.	276
5	Innovent Biologics Inc.	260

유럽

2016년까지 총 2,033건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총 투자금액은 109억 5천만유로(13조 9,086억원)를 기록함



2016년 4/4분기 신규투자기업(유럽)

2016년 4분기 유럽에서는 사물인터넷 연결성 제공업체인 Sigfox SA, 3세대 유전체 분석 장비를 공급하는 시퀀싱 업체인 Oxford Nanopore Technologies가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단위 : 백만유로]

순위	2016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1	Sigfox SA	150
2	Oxford Nanopore Technologies Ltd.	118
3	Devialet SA	100
4	Kymab Ltd.	94
5	HelloFresh SE	85

신규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중국	65,191	203,096	580,208	484,531
유럽	83,324	107,458	175,667	139,086
한국	13,845	16,393	20,858	21,503

*환율은 2016년 12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205.00원, 1유로=1,270.1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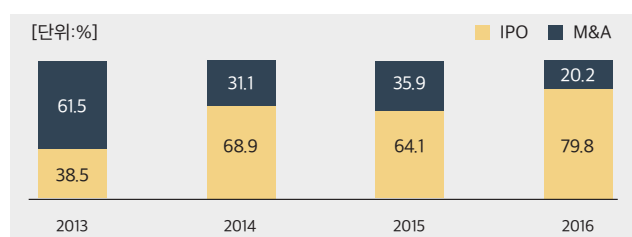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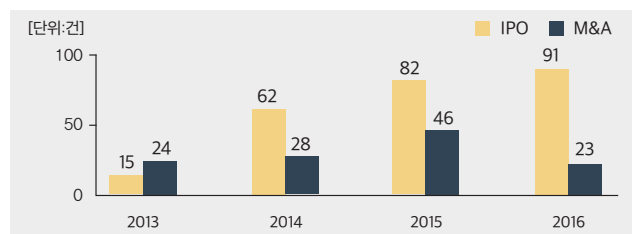
비교

- 2016년 4분기까지 신규투자자는 한국이 2조 1,503억원으로 중국은 한국의 22.5배 수준, 유럽은 6.5배 수준을 기록함
- 13년~16년까지의 중국의 신규투자 연평균성장률(CAGR)¹⁾은 95.2%로 유럽의 18.6%, 한국의 15.8%보다 현격하게 높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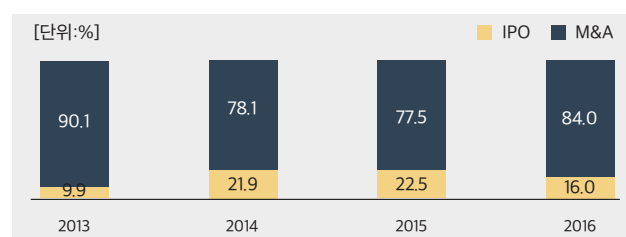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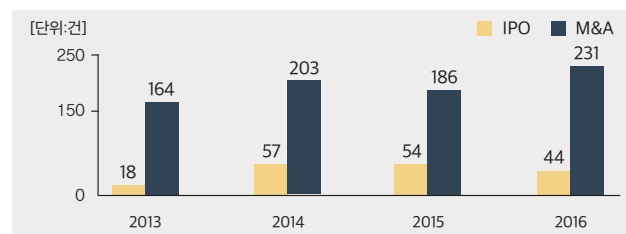
중국

2016년까지 건수기준으로 91건 (79.8%)이 IPO, 23건 (20.2%)이 M&A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유럽

2016년까지 건수기준으로 231건 (84.0%)이 M&A, 44건 (16.0%)이 IPO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비교

- 2016년 4분기까지 중국의 회수유형은 대체로 IPO를 통한 회수를 하는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유럽은 주로 M&A를 통해 회수하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1) 연평균성장률(CAGR)은 기하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진행하는 3,810억원 규모의 2017년 1차 정시 출자 사업에 54개(중복지원 포함) 벤처캐피탈이 신청했다. 출자요청액은 6,142억원이며 펀드 결성 예정액은 신청금액의 1.7배인 1조 475억원이다. 다만 문화계정 뉴콘텐츠 분야와 미래계정 가상 증강현실, 관광계정 관광산업육성에는 지원사가 하나도 없어 2차 출자사업으로 이월됐다.

■ 2017년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 및 3월 수시 출자사업 접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결성예정액	출자요청액
1차 정시	중진	청년창업	이에스인베스터	1,337	800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세종벤처파트너스		
			지온인베스트먼트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패스파인더에이치		
			데브시스템즈벤처스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엑셀러레이팅	씨피벤처스	1,277	745
			인라이트벤처스		
			비에이파트너스		
			심본투자파트너스		
			LWK 파트너스(가칭)		
			인사이트에퀴티파트너스		
			벤처포트인베스트먼트		
			지유투자		
		고급기술인력 창업	마젤란기술투자	2,892	1,635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동훈인베스트먼트		
			엠지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포스코기술투자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제이엑스파트너스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인터밸류파트너스		
			케이런벤처스		
		여성기업	디티앤인베스트먼트	300	200
			대성창업투자		
		스몰 M&A 매칭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400	200
		해외진출	네오플렉스	300	120

1차 정시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유티씨인베스트먼트	750	500
			시너지아이비투자		
			대덕벤처파트너스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케이에스티인베스트먼트		
	문화	방송·드라마	지온인베스트먼트	120	72
		콘텐츠기업육성	화이인베스트먼트	600	300
			아이디벤처스		
		소액투자전문	지비보스톤창업투자 주식회사	1,215	800
			유니온투자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미래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	이에스인베스터	1,215	1,215
			동훈인베스트먼트		
	영화	중저예산한국영화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923	540
			이수창업투자		
			캐피탈원		
에쓰비인베스트먼트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보광창업투자	120	70	
3월 수시	중진	세컨더리	송현인베스트먼트	300	30
		KVF결성목적	시너지아이비투자	430	8.5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허난진언투자유한공사		
계			11,205	6,180.5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탈(VC)에 총 1조 5,500억원을 위탁 운용한다고 13일 공고했다. 미드캡(Mid-Cap.) 펀드, 벤처 펀드, 메자닌 펀드, 공동투자(Co-Investment) 펀드, 섹터 펀드 각 유형에 대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다음달 메자닌 펀드 및 Co-Investment 펀드 분야에 대한 투자제안서 접수를 시작해 오는 7월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8월에 Mid-Cap 펀드 및 벤처 펀드 분야의 투자제안서를 제출받아 11월까지 최종 선정하고, 섹터 펀드는 건별로 수시로 선정할 방침이다.

■ 2017년도 국민연금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배정 예상금액	기관 수	방 식
Mid-Cap. 펀드	4,500	3	일괄선정
벤처 펀드	2,000	6	일괄선정
메자닌 펀드	3,000	2	일괄선정
Co-Investment 펀드	4,000	2	일괄선정
섹터 펀드	2,000	2	연중 건별 선정
계	15,500	15	10억원 이내

주) 배정 예상금액과 선정 기관 수는 상한 기준이며 기준 부합 여부 등에 따라 각각 축소될 수 있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3월 14일 마감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KDB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조성하는 총 3000억 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모집에 벤처캐피탈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11곳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는 중소·벤처분야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세마트랜스링크 등 5곳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중소·벤처분야에는 450억 원이 출자돼 최소 500억 원 규모의 펀드 2개가 조성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구술심사를 거쳐 4월 운용사를 선정되고 출자자간 승인을 거쳐 6월 최종 운용사가 확정된다.

제 2차 코넥스 활성화 펀드 위탁운용사로는 SBI인베스트먼트와 KB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성장금융은 예비적격운용사로 선정된 4곳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술심사를 진행한 후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2곳을 최종 운용사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반도체성장펀드의 첫 출자사업으로 1,350억원 규모의 반도체 창업·성장·M&A(인수합병) 분야 하위펀드 결성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올해 선정분야는 기업 성장 분야에 따라 △창업 △성장 △M&A 등 3개 하위펀드로, 창업펀드는 반도체 관련 우수인력 육성 및 창업기업 확대를 위해, 성장펀드는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M&A펀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 반도체성장펀드 2017년 출자사업 개요

[단위 : 억원]

분 야	최소결성금액(출자비율)	출자금액		선정운용사
		반도체성장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창업	250(60%)	100	50	1개
성장	600(50%)	200	100	1개
M&A	500(40%)	100	-	1개 이상
계	1,350	500	150	3개 이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진행하는 올해 정기 출자사업에 벤처캐피탈, 대형증권사를 포함한 후보자 13곳이 운용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가장 많은 도전자가 몰린 분야는 농림축산식품 분야로, 5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GP로 2곳을 선정해 총 4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세컨더리 분야는 도전자없이 제안서 접수가 마감됐다.



■ 2017년 정기 출자사업 접수 현황

분 야	신청 운용사
농림축산식품	센트럴투자파트너스
	나우아이비캐피탈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KB증권 & KB인베스트먼트
	NH투자증권 & NH농협은행
ABC	미시간벤처캐피탈
	디티앤인베스트먼트 & NH농협캐피탈
	에스비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수산업	포스코기술투자 & 농심캐피탈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비보스톤창업투자
6차산업화	패스파인더에이치
세컨더리	-

건설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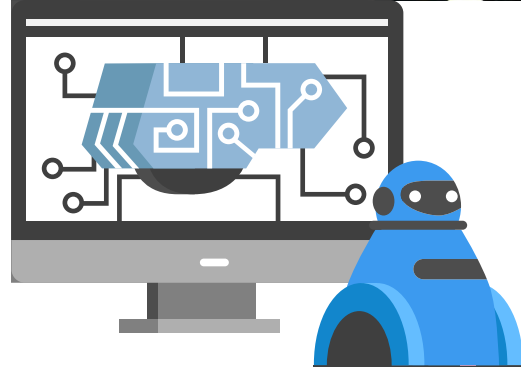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설립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블라인드펀드 운용사 선정 입찰에 국내 사모 투자회사(PEF) 6곳과 벤처캐피탈(VC) 9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PE 및 VC 위탁운용사 공모를 위한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PE는 6곳, VC는 9곳이 응찰했다. 건설공제회는 약 일주일 간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3월 8일 적격 예비후보(숏리스트)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으며, 숏리스트들은 4월 초 구술심사(PT)에 임하게 되며,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최종 운용사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제회의 이번 블라인드펀드 출자사업 규모는 총 800억원으로, PE 및 VC 부문에 각각 500억원, 3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PE는 최대 2곳, VC는 총 6곳 이내로 위탁운용사를 추릴 방침이다. PE의 경우 운용사당 250억원, VC는 50억~100억원 규모로 출자금이 할당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에너지신산업 펀드가 조성하는 1,250억원 규모의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사업에 벤처캐피탈, 증권사, 사모투자회사 등 17개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에너지신산업 펀드는 한국전력이 조성한 펀드로 현재 5000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번 자펀드 출자사업은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와 'e-신산업 성장기업 육성펀드' 두 분야로 진행된다. 운용기간은 초기기업 펀드의 경우 10년, 성장기업 펀드는 8년이다. 조합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창업·벤처전문형 PEF, 경영참여형 PEF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구술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에너지신산업펀드 출자사업 지원 현황

출자분야	신청 운용사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총 500억원)	동훈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KST인베스트먼트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엘비인베스트먼트
	엠쥬인베스트먼트
	캐피탈원
	크리설릭스코리아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포스코기술투자
e-신산업 성장기업 육성펀드 (총 750억원)	메리츠총금증권
	송현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브이엘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위드원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기업은행-트루벤인베스트먼트
	하나금융투자-스톤브릿지캐피탈
	하나자산운용



본회는 지난 1990년부터 국내 유일의 벤처캐피탈 업계 소식지인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www.kvca.or.kr